

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 포스트시즌 미리 본다

2위 두산 - 3위 SK 이어 1위 KIA - 2위 두산 맞대결  
KIA, 주중 한화와 몸풀고 주말 잠실대첩...1위 굳히기

이번주 프로야구 녹색그라운드에 '미리 보는 포스트 시즌'이 전개된다.

프로야구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SK 와이번스가 이번주 물고 물리는 접전을 펼치게 된다.

KIA는 주중 한화와 홈에서 3연전을 치른 뒤 주말 잠실로 출격해 2위 두산과의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된다. 극과 극의 행보를 하고 있는 KIA와 한화가 광주에서 맞붙는 동안 문학에서는 2년 연속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했던 두산과 SK가 막바지 순위 싸움을 펼친다.

주중 2·3위의 대결에 이어 주말에는 1·2위 팀의 전장이 벌어지는 것이다.

KIA는 SK와의 지난 주말 3연전에서 '한방'을 앞세운 타선과 탄탄한 마운드를 바탕으로 싸움이 3연승을 거두고 1위를 지켰다. 귀중한 3연승으로 순위 상승을

노리던 SK의 추격을 따돌리고, 2위 두산과는 4게임차로 유지하게 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말 '잠실 대전'이 1위 수성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위 팀의 다툼인 만큼 주말 총력전이 예상되지만 주중 한화와와의 대결도 쉽게 지나칠 수 없다.

1위팀과 최하위 팀인 KIA와 한화의 상대전적은 8승1무5패다. KIA는 한화의 앞선 14번의 대결에서 상대의 '다이내미트' 타선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팀 방어율이 3.85로 8개 구단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

고 있지만 한화전 방어율은 4.70까지 올라간다.

특히 주중 첫 대결인 25일 경기에서는 한화 에이스 류현진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류현진이 지난 7월 18일 대전에서 열린 KIA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 2와3분의2이닝 동안 6실점 하며 무너지기는 했지만 원조 'KIA 킬러'다. 지난 19일 부상 복귀전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호투로 팀의 삼삼전 8연패를 끊으며 에이스 본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해반기 부척 방망이가 매서워진 KIA와 '흠린군단'

한화의 치열한 타력싸움이 양팀의 승패를 결정짓게 될 예정이다.

윤석민을 필승카드로 앞세운 KIA는 주말 마운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두산전은 KIA에게 포스트 시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다. 올 시즌 KIA는 두산에게 4승8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4월 4일 두산과의 개막전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2연패로 시즌을 시작했던 KIA는 한기주의 난초까지 겹치며 이번이 눈앞에서 두산전 승리를 놓쳤다.

이번 대결은 시즌 초반보다 한 층 짜임새 있어진 KIA 전력의 시험무대다. 두산과 가장 많은 7경기를 남겨둔 만큼 이번 주말의 승패가 시즌 마지막 KIA의 순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24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65	40	4	0.596	3승
2	두산	61	46	2	0.560	2승
3	SK	61	47	5	0.540	3패
4	롯데	57	58	0	0.496	1승
5	삼성	55	56	0	0.495	2패
6	히어로즈	51	55	1	0.477	1패
7	L.G	49	61	3	0.434	1패
8	한화	35	71	3	0.321	1승

## 김상현 100타점-1

역대 세번째 최소경기  
97경기출장·99타점  
주중 한화전 돌파 유력

KIA 타이거즈 '해결사' 김상현이 역대 세 번째 최소경기 100타점에 도전한다.

올 시즌 LG에서 친정 KIA로 돌아온 김상현은 현재 97경기 출장해 99타점을 기록하며 100타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역대 최소 경기 100타점은 지난 2003년 삼성 시절

이승엽(요미우리)이 기록한 89경기, 심정수(당시 현대)는 같은해 94경기에서 100타점을 기록해 역대 2위를 달리고 있다.

김상현이 25일 타점을 추가하면 2002년 이승엽(98경기)과 타이틀 기록 역대 세 번째 최소경기 100타점을 달성하게 된다.

시즌 100경기 이내에 100타점을 기록한 선수는 이승엽(02·03년), 심정수(03년)가 유일하다.

김상현이 100타점을 돌파하면 팀의 6번째 100타점 선수가 되는 영예도 안는다. 지난 2003년 장성호, 홍세완에 이어 6년만이다.

2위 이대호(롯데·90타점)를 9개 차로 따돌리고

타점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상현이 이대로 시즌을 마감한다면 지난 1988년 김성환에 이어 21년 만에 KIA에서 타점왕을 탄생한다.

1위 독주중인 KIA는 이번주 팀 홈런과 도루 기록 달성에도 나선다.

SK와의 주말 원정 경기에서 이들 연속 대타 홈런으로 승리를 챙겼던 KIA는 이번주 2천900홈런에 도전한다. 24일 현재 2천896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KIA는 4개의 홈런을 추가하면 역대 두 번째 2천 900홈런을 때려낸 팀이 된다.

또 KIA가 3개의 도루를 추가하면 역대 팀 사상 처음으로 3천400도루를 달성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 개막 제17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가 24일 개회식을 갖고 11개 종목에 걸쳐 3개국 943명의 선수들이 열전 6일에 돌입했다. 강진중 합운동장에서 열린 일본과 전남대표팀의 럭비경기에서 전남 정수영(1번·순천공고)이 일본수비를 뚫고 문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강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亞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개막

한·중·일 등 6개국 참가  
한국 6년만에 우승 도전

아시아야구연맹이 2년마다 개최하는 제8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다.

2005년 인천대회 이후 4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6개국 이상, 하위 그룹으로 나눠 리그를 벌인 뒤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상위 그룹 A조에는 한국, 일본, 대만, 하위 그룹 B조에는 중국, 태국, 스리랑카가 속해 있다.

2005, 2007년 2년 연속 준우승에 그친 한국은 2003년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대회 이후 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박태호(대구고)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은 이날 봉황대기 전국고교대회에서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천안북일고 투수 김용주 등 18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한화 이글스로부터 1라운드에 지명받아 내년 프로 무대에 진출하는 김용주는 시속 140km대의 직구에 낙차 큰 커브와 슬라이더 등이 주무기인 투수로 봉황대기 결승전에서 완투승을 거뒀다.

지난 4월 황금사자기 고교대회 MVP로 선정된 투수 문성현도 대표팀 마운드를 책임지게 된다.

또 LG 트윈스를 지휘했던 이순철(현 MBC ESPN 해설위원)씨 아들 성근(경기고)도 내야수로 청소년 대표팀에 뽑혀 부자가 청소년 야구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

한국은 지난 대회 우승국인 대만과는 25일, 2005년 대회 우승국인 일본과는 27일 예선전을 치르게 된다.

28일 A조 1위-B조 1위, A조 2위-3위 대결 승자가 29일 우승을 다툰다.

대한야구협회는 대회가 끝나고서 대회 최우수선수(MVP) 등 개인상을 시상하고 각 포지션에서 최고 기량을 발휘한 10명을 올스타로 선정한다./연합뉴스

## 아마골퍼 최고수 가린다

허정구배 오늘 개막

남자 아마추어 골프 최고수를 가리는 허정구배 제56회 한국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성남 남서울 골프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중, 고교생 엘리트 아마추어 선수 뿐 아니라 골퍼장 클럽 챔피언을 비롯한 25세 이상 아마추어 선수들도 참가하는 아마추어 골프 최고 권위의 대회이다.

올해 대회는 9월 15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골프 팀선수권대회에 나갈 국가대표 선발전도 겸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팀선수권대회도 같은 코스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선수들에게는 코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승 후보로는 국가대표 에이스로 자리잡

은 김민휘(17·신성고)가 꼽힌다.

키 183cm, 체중 80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김민휘는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가 280야드에 이르는 장타자로 올해 호심배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작년 송암배에서 우승한 윤정호(18·중산고), 올해 박카스배 우승자 김기환(18·제물포고) 등 국가대표, 상비군 멤버들이 출생동해 아마추어 1인자에 도전한다.

호심배 대회에서 준우승한 주니어 상비군 김시우(14·육민관중), 올해 송암배에서 우승한 상비군 채범근(18·영신고) 등도 참가해 명승부를 펼친다.

1954년 창설된 이 대회는 대한골프협회와 한국프로골프협회 등을 이끌었던 고 허정구 삼양 인터내셔널 회장을 기려 2003년부터 '허정구배'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프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익재, 김대세, 김경태 등 굵직한 선수들을 배출했다. 이번 대회는 SBS골프채널이 중계한다. /연합뉴스



위성미(왼쪽)와 김초롱이 24일(한국시간) 열린 솔하임컵대회에서 미국의 우승을 확정 지은 후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위성미·김초롱 앞세워 유럽 제압

女프로골프 솔하임컵 3회연속 우승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맹활약한 미국이 유럽과 여자프로골프 대항전인 솔하임컵에서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은 2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슈거그로브의 리치 하비스트 팜스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12명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6승4무2패를 거둬 16-12로 승리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대회에서 2005년과 2007년에 이어 3연승을 거둔 미국은 역대 전적에서도 8승3패의 강세를 이어 나갔다. 3연승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이

거둔 이후 두 번째다.

전날까지 유럽과 8-8로 팽팽히 맞섰던 미국은 또 홈에서 열린 여섯 차례 경기에서도 두 이기는 '안방 불패' 행진도 계속 했다. 미국 대표로 나선 위성미, 김초롱(25) 두 교포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

먼저 위성미는 이번 대회에서 혼자 승점 3.5점을 벌어들여 가장 많은 점수를 따냈다. 단장 지명으로 대회 출전권을 얻은 위성미로서는 시즌 내내 목표라고 밝혔던 솔하임컵 첫 출전의 꿈을 이룬 것은 물론 빼어난 활약으로 홈팬들의 환호성을 끌어들였다. /연합뉴스

첫날 포볼 경기에서 모건 프레셀과 짝을 이뤄 무승부를 기록한 위성미는 이후 둘째 날 포볼과 포스에 모두 출전해 2승을 수확하더니 이날 싱글 매치플레이에서는 헬렌 알프레드슨(스웨덴)을 한 차를 따돌렸다. 동점인 상황에서 15번, 16번홀을 연달아 때내며 알프레드슨에 사실상 KO 판지를 날렸다.

위성미는 "경기 내내 빨간 점수(앞서는 표시)를 스코어보드에 올리자는 생각만 했다"며 기뻐했다. 김초롱도 플라 크리머와 함께 3점을 따내며 위성미의 뒤를 밟았다.

2011년 대회는 아일랜드 미스의 킬린 캐슬 골프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